

# 미국의 미래와 2020년 7월 18일 - 제4호

Jeff Pippenger

2023-09-19

## 1863

올라이 강으로 표상되는 다니엘서 8장과 9장의 메시지는 1798년에 봉인이 풀렸다. 8장의 예언은 가브리엘에 의해 9장에서 해석되었지만, 이는 다니엘이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로 여겨지는 기도를 드린 후에야 이루어졌다. 그 기도에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에서 발견한 바에 따라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 동안 지속될 것임을 깨달았음을 밝혔다.

메대 사람의 씨요 아하수에로의 아들인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해에, 그의 치세 첫해에 나 다니엘은 책들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에 마치리라 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다니엘 9:1, 2.

예레미야는 또한 그 칠십 년의 끝에 다리오의 장군인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할 때 벨사살이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온 땅은 황폐와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모든 민족은 칠십 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칠십 년이 차면, 내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과 그 나라를 벌하고, 갈대아 사람의 땅을 영원한 폐허로 만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5:11, 12.

다니엘은 또한 칠십 년간의 황폐가 모세가 기록한 예언의 성취임을 깨달았다.

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떠나 주의 음성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저주와 하나님의 증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가 우리에게 부여되었나이다. 이는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음이라. 또 주께서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들을 거슬러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심으로 입증하셨나니, 온 하늘 아래 예루살렘에 행해진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도하여 우리의 불의를 떠나 돌이키고 주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 9:11-13.

이스라엘이 깨뜨려 "저주"를 가져오게 한 "맹세"는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였다. 레위기 26장에서 "일곱 때"로 번역된 단어는 다니엘 9장에서 "맹세"로 번역된 것과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이다. "일곱 때"로 번역된 단어로 나타난 모세의 맹세는 윌리엄 밀러가 발견한 최초의 시간 예언이었고, 그것은 1863년에 그의 기초 진리들 중 가장 먼저 제쳐졌다. 윌리엄 밀러는 엘리야를 대표했으며, 이는 예언의 영에 의해 확인된다.

수천 명이 윌리엄 밀러가 전한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기별을 선포하도록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졌다. 초기문집, 233쪽.

1863년에 한때 그 운동에 속해 있던 이들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창립하면서 밀러파 운동은 끝났다. 그들이 교회로서 출범하자 그 운동은 막을 내렸다. 그 운동은 그들이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로 상징된 모세를 죽이고, 동시에 그 운동에 모세의 '맹세'를 제시했던 전령인 엘리야를 죽였을 때 끝났다. 모세와 엘리야는 1863년에 둘 다 죽임을 당했으며, 하나님께서 'Future for America' 운동을 옛 길로 되돌리신 2001년 9월 11일 이후가 되어서야 부활할 것이었다.

퓨처 포 아메리카는 2001년 9월 11일을 셋째 화가 도래한 때로 인식했고, 9월 11일의 이슬람 공격을 그렇게 식별하는 근거는 밀러주의자들이 규정한 첫째와 둘째 화의 역사였으며, 이는 1843년과 1850년 개척자 도표 둘 다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슬람의 현대적 역할을 확증하기 위해 밀러주의 역사로 되돌아감으로써, 주님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에 대한 퓨처 포 아메리카의 이해를 열어 주셨는데, 그것은 두 도표 모두의 중앙 열에 도식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두 도표 모두에서, 그 중앙 열의 한가운데에는 십자가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두 표의 제작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모세의 "맹세", 곧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가 다른 모든 예언적 도식의 중심이 되게 하셨고, 두 표 모두에서 그리스도를 바로 한가운데에 두셨다.

이는 다니엘서 9장에서 가브리엘이 해석한 또 다른 예언에 나타난 한 기간과 일치했는데, 그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한 이레 동안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굳게 하실 것이라고 밝히고 있었다.

그는 한 주 동안 많은 이들과 언약을 굳게 할 것이요, 그 주간의 한가운데에 제사와 봉헌물을 그치게 할 것이며, 가증한 것들의 넘침으로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끝이 이를 때까지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한 자 위에 쏟아지리라. 다니엘 9:27.

예언적 한 주는 상징적 2,520일을 뜻하며, 가브리엘이 설명하던 그 예언은 그 상징적 2,520일의 "한가운데", 곧 중심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임을 밝히고 있었다. 그리스도는 하박국의 두 표 모두에서 "이천오백이십"의 중심이며, 또한 그가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확증하신 그 주간의 중심이시다.

1863년에 재림주의가 교회로 조직되었고, 엘리야의 영으로 권능을 받았던 밀러주의 운동은 죽임을 당했다. 밀러주의 운동은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의 맥락에서 자신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고 이해했다. 1844년의 대실망 이후 그들과 갈라선 이들은 라오디게아인으로 규정되었다. 1856년에 제임스 화이트는 리뷰 앤드 헤럴드에서 연재를 시작하여, 빌라델비아로 시작된 그 운동이 라오디게아가 되었고 교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제시된 처방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해 같은 간행물에서 제임스 화이트는 레위기 26장의 2,520년 예언에 관해 하이람 에드슨이 쓴 연재 기사도 게재했다. 그 연재는 끝나지 못했다.

주님께서 2001년 9월 11일 이후 Future for America의 운동을 옛 길로 되돌리셨을 때 에드슨의 글들이 재발견되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2,520년에 해당하는 두 기간이 두 가지 저주로 인식되었다. 하나는 북쪽의 열 지파를, 다른 하나는 남쪽의 두 지파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밀러는 유다 남왕국에 대한 일곱 때를 식별했지만, 에드슨은 이스라엘 북왕국에 대한 일곱 때를 식별했다. Future for America는 둘 다 적용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그 두 차례의 흠어짐을 결합하면 밀러나 에드슨도 인식하지 못했던 예언적

빛을 가져온다.

주께서 2001년 이후 Future for America를 옛 길로 되돌리셨을 때 모세의 '서약'이 다시 살아나 일어서게 되었다. 그 '서약'과 연결된 기별은, 첫째 천사의 사자들이 제시하고 예표했던 그대로, 셋째 천사의 사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Future for America는 '엘리야'의 능력으로 '모세'가 대표하는 기별을 선포한 운동이었고, '하박국의 표들'이라는 제목의 일련의 발표가 2012년경에 끝날 때까지 엘리야는 모세의 증언을 분명히 전했다. 그 발표 시리즈가 끝나자,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모세와 엘리야를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려 들었다. 그 전쟁은 Future for America가 1996년부터 해 오던 일을 중단하고, 교만하게도 'The School of the Prophets'라 이름한 학교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을 때 시작되었다. 차라리 그 학교를 '거짓 선지자들의 학교'라고 부르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

그 학교가 주께서 자신의 사자들로 확인하신 적이 없는 이들이 자기 생각을 내놓도록 허용하기 시작했을 때 벌어진 혼돈과 혼란은 2020년 7월 18일 Future for America의 죽음으로 끝났다. 그 시점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거리에서 이미 죽임을 당한 뒤였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고 죽일 것이다. 또 그들의 시체는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 불리는 그 큰 성의 거리에 놓일 것이니, 거기에는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요한계시록 11장 7, 8절.

믿을 만한 증언은 '하박국의 판들'이라는 제목의 시리즈가 결론을 맺으면서 끝난 그 증언이다. 그때 짐승이 공격해 왔다. 나는 현재의 이 글들을 누가 따라 읽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독자층이 퓨처 포 아메리카의 적대자들만큼이나 7월 18일의 실망을 여전히 받아들일려 애쓰는 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내가 '적'으로 규정하는 범주에 속한 이들은 이 예언적 역사의 적용이 그들 눈에는 얼마나 자기에게 유리해 보이는지 지적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면 그뿐이다. 시간은 너무 촉박하여, 퓨처 포 아메리카의 역사가 밀러주의 운동이 예표한 그 운동으로 분명히 식별되어 왔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고, 또한 그 운동을 이끌도록 일으켜 세워진 결함 많은 라오디게아적 인간 사자가 윌리엄 밀러로 예표되지 않았다고 가장할 수도 없다.

밀러는 빌라델비아인이었고, 나는 1975년에 세상에서 나와 재림 신앙으로 들어왔으므로 공인된 라오디게아적 재림교인이다. 나의 생애가 그 사실을 증언한다. 그렇긴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최근에 지금 그분이 드러내고 계신 기별을 글로 기록하여 교회들에게 보내라고 나에게 지시하셨다. 그분의 지시는 그분이 모세와 엘리야를 부활시키실 때 그들이 라오디게아인이 아니라 빌라델비아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주어졌다. 밀러주의 역사에서 시작된 그 운동은 빌라델비아의 때였지만, 밀러주의자들이 놓은 기초를 거부하는 과정이 시작된 1856년에 결국 라오디게아로 전환되었다. 그 거부는 히람 에드슨의 펜을 통해 제시된 빛의 새로운 전개를 제쳐두면서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7년 뒤인 1863년에 모세의 기별을 제시했던 엘리야의 운동이 죽임을 당했다. 그 운동이 죽임을 당한 동시에, 그 운동을 대체할 교회가 조직되었다. 모세와 엘리야는 재림운동의 시작에서 죽임을 당했고, 재림운동의 끝에서도 다시 죽임을 당했다.

예언적 라오디게아의 끝에서, 1989년에 히데켈 강의 이상이 봉인이 풀렸고 라오디게아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주님은 놀라지 않으셨고, 세 천사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대로 마치실 것을 아셨다. 그분은 시작하신 것처럼 빌라델비아인들의 운동으로 그것을 끝내실 것이었고, 이를 위해 태생적으로 라오디게아적이었던 그 운동은 죽임을 당하고 빌라델비아인들로서 부활해야 했다. 그리함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나왔던 그 운동은 삼중연합이 '일곱 중에 속한 여덟째'가 되는 바로 그 역사 속에서 '일곱 중에 속한 여덟째'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동일한 역사 속에서 공화주의의 뿔 또한 애굽과 소돔의 '위키즘'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일곱 중에 속한 여덟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나, 그 예언의 흐름은 이 글들에서 후에 다루게 될 것이다.

각 백성과 족속과 언어와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무덤에 묻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것이다.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자 그들이 일어서니, 그들을 본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요한계시록 11:9-11.

Future for America는 무덤에 묻힌 것이 아니라, 살해되었던 그 거리에서 그대로 누워 있었고, 원수들은 그 걸보기의 죽음을 기뻐하였다. 그러나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서더라." 더 이상 때가 없으므로, 그 사흘 반은 1,260일 또는 1,260년을 상징하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서 성소와 군대가 짓밟힌 광야를 가리킨다. 만일 그들이 무덤에 들어갔다면, 짓밟힐 수 있는 거리 위에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Future for America의 짓밟힘은 단지 상징적 기간일 뿐만 아니라, 모세의 맹세로 대표되는 "일곱 때"라는 기별의 상징적 기간이기도 하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민족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누가복음 21:24.

예루살렘이 짓밟힌 때는 세 번 있었다. 첫째는 기원전 677년부터 기원전 607년까지 바빌론에 의한 것이었다. 둘째는 서기 66년부터 70년까지 이교 로마에 의한 것이었다. 셋째는 538년부터 1798년까지 영적 로마에 의한 것이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지목된 이방인들의 예루살렘 짓밟음은 교황권의 1,260년 통치 기간이었다. 모세와 엘리야의 증언이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11장은 그 기간을 지칭하는 말로 시작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졌고 천사가 서서 이르되,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제외하고 그것은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1:1, 2.

요한에게 성전과 그 안의 예배자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은 1844년에 심판이 개시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는 바로 앞의 두 절이 요한이 1844년의 대실망의 쓰라림을 경험했음을 밝히고, 그가 그 기별을 다시 선포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다음, 11장 1절이 심판이 막 시작되었음을 밝히기 때문이다.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다 흔들릴 때가 이르렀으니,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이 남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심사되고 있으니,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의 예배자들을 측량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나는 네 행위를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도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와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였나니,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아는 이가 없느니라.' 1888년 자료, 1116.

1844년에 조사 심판이 개시되는 것을 요한이 나타내고 있을 때, 그는 성전의 들은 제쳐 두라고 들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거룩한 성을 천이백육십 년 동안 짓밟을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1장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을 것이라고 밝힌다. 요한은 11장에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는 때가 538년부터 1798년에 이르는 역사였다고 막 규정했다. 요한은 12장에서 이 기간을 두 번 '광야'라고 부르는데, 이는 교회가 교황이 가하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 도피한 기간을 가리킨다.

모세와 엘리야가 죽임을 당하고 삼일 반 동안 거리에 버려져 짓밟힐 때, 예루살렘이 짓밟혔던 과거 세 차례의 사건들은 그 기간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누가는 이방인의 때가 하나 이상임을 지적하지만, 우리는 이방인의 때가 성취된 때가 1798년이었음을 안다. 첫 번째 '이방인의 때'는 기원전 723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앗수르에게 짓밟혔을 때 시작되었다. 그 짓밟힘은 이교 권세에 의한 유린의 시작이었고 538년까지 계속되었으며, 그때부터는 교황 권세가 그 일을 이어받아 1798년까지 계속하였다. 이교주의는 문자적 이스라엘을 흠뜨리고 짓밟았고, 교황주의는 영적 이스라엘을 흠뜨리고 짓밟았다. 이방인의 '때들'은 레위기 26장의 2,520년을 가리키며, 그것은 두 번의 짓밟힘의 기간을 나타낸다. 첫 번째는 앗수르, 이어 바벨론, 이어 이교 로마로 대표되는 이교주의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리고 밀러가 자신이 사용한 예언의 거룩한 틀 안에서 식별한 두 번째 황폐케 하는 권세는 교황주의였고, 그것은 1798년까지 그 짓밟음을 계속할 것이었다. 이교주의와 교황주의에 의한 그 짓밟힘은, 재림주의의 기초이자 중심 기둥이 되는 해답을 도출하는 하늘의 대화 속에서 제기되는 바로 그 질문이다.

그때 내가 한 거룩한 이가 말하는 것을 들었고, 또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던 그 거룩한 이에게 이르되, '매일 드리는 제사와 황폐하게 하는 범죄에 관한 이 환상, 곧 성소와 군대를 짓밟히도록 내어 주는 일이 얼마 동안이겠느냐?' 하였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일이니, 그 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다니엘 8:13, 14.

천사 가브리엘과 다른 천사들은 밀러가 'daily'가 이교주의를, '황폐케 하는 범법'이 교황주의를 가리킨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이끌었다. 이교주의와 교황주의는 모두 성소와 군대를 짓밟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가 언급한 이방인의 '때들'은 각각 1,260년의 두 차례 짓밟힘 기간이며, 이 둘을 합한 것이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이다.

모세의 '맹세'의 기별은 1863년에 죽임을 당했으며, 모세의 기별을 전했던 사자 엘리야도 함께 죽임을 당했다. 모세의 기별과 엘리야 사자는 2001년 9월 11일 이후에 부활했다. 엘리야에 의해 다시 선포된 모세의 기별과 그 엘리야가 둘 다 죽임을 당해 길거리에 버려지고 천이백육십 일 동안 장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니엘이 모세의 '맹세'라고 부르는 '일곱 때'의 기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밀러와 밀러파로 예표된, 엘리야가 전한 모세의 기별을 반복하는 그 운동과 그 사자는 결국 일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발로 일어서고 그들을 본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그들은 하늘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큰 음성을 들었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보았다. 요한계시록 11:11, 12.

다음 글에서 이 진실을 다루겠습니다.